

후설과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

양 영 운

주제분류 방법론, 인식론.

주요어 심리학주의, 발생적 심리학, 기술적 심리학, 현상학, 수리논리학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후설과 프레게의 심리학주의 비판의 차이점을 밝혀 보는 동시에 그 차이점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경향의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들 두 철학자의 철학체계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후설과 프레게는 모두 논리학과 수학의 정초에 대한 문제를 통해 심리학주의 논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프레게는 자신의 철학에서 심리학을 철저히 배제한 후에, 대상 그 자체에 시선을 돌려 객관적인 사상(Gedanke)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반면에, 후설은 여전히 심리학적 탐구의 유용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후설은 심리학주의 비판을 통해 객관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문제 삼는 인식론 나아가 선험철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철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프레게의 경우에는 심리학주의와의 논쟁을 벌이면서 수리논리학에서 출발하게 되는 분석철학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머리말

후설과 프레게의 심리학주의(Psychologism)에 대한 비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후설의 경우 현상학적 철학의 본격적인 출발이 당시 널리 영향력을 행사하던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작되며, 이 비판을 통해 후설은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방법을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철학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는 프레게 역시 수리철학을 스스로 중요한 철학적 원리로 내세운 문맥의 원리(The Context Principle)를 통한 심리학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철학자들의 철학적 전개는 당시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심리학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 19세기 당시 중요한 학문적 쟁점이 되고 있었던 논리학과 수학의 정초에 대한 문제를 통해 심리학주의 논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후설은 심리학주의 비판을 통해 객관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문제 삼는 인식론 나아가 선험철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철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프레게의 경우에는 심리학주의와의 논쟁을 벌이면서 수리논리학에서 출발하게 되는 분석철학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철학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후설과 프레게의 심리학주의 비판의 차이점을 밝혀 보는 동시에 그 차이점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경향의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주의라는 공통의 출발점을 갖는 두 철학자의 철학이 그 후 어떻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악을 토대로 해서 이들 두 철학자의 철학체계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형태의 심리학주의 가운데, 후설과 프레게와의 관련 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던 발생적 심리학주의와 초기 후설의 심리학주의적 입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반심리학주의에 관한 프레게와 후설의 비판적 입장을 검토하고, 세 번째로는 심리학주의에 대한 이들 비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볼 것이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각기 상이한 철학적인 전개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심리학주의 비판이 그들의 철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후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사상 발전의 초기 심리학주의 비판을 통한 논리적인 객관주의의 성립과정을 섭렵하는 일과 이어서 그가 말하는 소위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혹은 본질학의 기초를, 더 나아가 후기 선험논리학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순수논리학의 이념에 대해서 고찰하는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주의에 대한 초기 후설의 비판은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을 확립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에 대한 후기 그의 비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설의 초기 저술을 중심으로 심리학주의로부터 객관주의 및 순수논리학으로의 변천 과정을 천착하는 일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의 실체와 더불어 그것이 후설의 그것과 얼마마한 편차를 보이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심리학주의

독일 관념론의 원천인 칸트는 정신이나 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권리의 문제(*quaestio juri*)와 사실의 문제(*quaestio fati*)로 구분한 바 있다. 칸트에 의하면 후자의 문제는 우리의 정신 안에서 아 프리오리한 개념이나 판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인 반면에 전자의 문제는 그러한 개념이나 판단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칸트는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

여 인식론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권리의 문제로 못 박고 있다. 인식론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인식론이 예를 들어 판단이 실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우리의 판단이 감성과 오성을 거쳐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칸트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타당하고도 종합적인 판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오성이라는 순수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식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어떤 선형적이고도 종합적인 판단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확립하는 것인 바, 그 조건은 아 프리오리한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을 실제로 얻게 되는 심리적 과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권리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의 구분을 유지하는 한, 인식론과 심리학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로 두 학문 가운데 하나를 다른 것으로 환원한다든지 함으로써 그 두 가지를 동일한 성격의 학문으로 보려는 한에서는 칸트의 구분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까지 유지된 칸트의 구분은 19세기 전반기 종교철학, 법철학, 교육철학은 물론이고 가장 규범적인 학문으로 생각되어 온 윤리학,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미학과 같은 분야마저도 심리학으로 환원함으로써 그 학문들을 심리학 내지는 응용심리학으로 만들려는 프리스(J. F. Fries)와 베네케(F. E. Beneke)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¹⁾

프리스와 베네케가 칸트의 구분을 거부하고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모든 학문, 특히 철학을 심리학으로 환원하려는 이유는 철학이 구사할 수 있는 도구가 내적인 관찰 혹은 내성(內省) 밖에 없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전체로부터 그들은 진리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성에 의한 주관적 요소로 환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²⁾ “우리의 모든

1) Borchert(ed.)(2006), 2nd Ed., 'Psychologism' 항목

2) Borchert(ed.)(2006), 114 쪽.

인식은 비록 경험과 함께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경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칸트의 유명한 명제를 무시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침투한 이러한 심리학주의 노선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다. 첫째는 수학이나 논리학마저도 심리학으로 환원함으로써 과거 그러한 학문이 지닌다고 생각되어온 규범적 성격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수학, 논리학과 심리학 간의 경계는 없어졌으며 권리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간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수학이나 논리학을 심리학이라는 경험과학에 정초시키는 한, 수나 논리 일반에 대한 법칙의 탐구는 우리의 심적 과정에 대한 탐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그러한 학문에서 비롯된 철학은 하나의 개별적 경험과학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수학과 논리학을 심리학에 정초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또 한 가지 결과는 수학과 논리학의 문장들이 주관적 의미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심리학주의에 의하면 수학적 개념이나 논리적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정신적인 대상이 될 것이며, 만일 정신적인 대상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결국 수학이나 논리학의 용어나 문장은 주관적인 의미 이상을 지닐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주의가 초래하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그것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된다. 후설과 프레게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 두 가지 결과를 겨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그 세부적인 측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지식을 심적인 것에 관한 지식으로 환원”하려는 심리학주의는 그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어(Th. De. Boer)는 이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심리학주의를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³⁾하

- 3) ①의식작용의 대상이 작용과 동일시 될 때. ②내용들이 작용에 내재함을 지시할 때. ③후설이 자신의 수에 관한 이론에서 형식적 속성 혹은 범주들을 반성의 술어로서 간주할 때. ④발생적 심리학이 규범적인 학문의 기초로서 그리고 정초하는 학문으로서 간주될 때. ⑤규범적인 학문들이 기술적 심리학 속에 기저되어 있

였으며, 모한티(J. Mohanty)는 크게 강한 의미의 심리학주의와 약한 의미의 심리학주의로 구분⁴⁾하였다. 반면 레스니크(M. D. Resnik)는 심리학주의의 주장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⁵⁾ 심리학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발생적 심리학주의(genetic psychologism)’와 후설의 초기 심리학주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논리학과 수 개념을 중심으로 심리학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발생적 심리학주의

심리학주의는 자연주의(Naturalism)의 특수한 변종으로 간주되는데, 논리학이 어떤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⁶⁾ 그 가운데 ‘모든 심적 현상을 궁극적으로는 생리적 현상으로 환원하여 인과적으로 설명’⁷⁾하고자 하는, ‘설명적이고 귀납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물리적인 특징을 지닌 발생적 심리학을 규범적인 학문의 기초로서 그리고 정초하는 학문으로서 간주’⁸⁾할 때 나타나는 심리학주의를 발생적 심리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후설 역시 『논리 연구』에서 심리학주의라는 말을 논리학을 발생적 심리학에다 기초하려는 시도로서 이해했

을 때. ⑥후설사상의 초기 단계를 후기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Boer(1978), 116쪽 참조)

- 4) 약한 의미의 심리학주의는 논리학의 본질적인 이론적 기초가 심리학에 있다는 주장이고, 강한 의미의 심리학주의는 논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간의 실질적 사고 과정에 관한 기술적 법칙에 불과한 논리적 법칙은 인간의 심리적 사건에 관한 진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전자는 인간의 실질적 사고과정에 관한 심리적 탐구를 논리적 기초에 관한 탐구의 필요조건으로 인정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비해 후자는 그것을 필요충분조건이라 주장하는데 두 입장의 차이가 드러난다.(Mohanty(1982), 20쪽 참조)
- 5) ①추상적인 대상을 대신하여 심적인 대상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심리학주의. ②수학적 개념과 논리적 개념에 대한 환원적인 정의보다 발생학적인 기술을 선호하는 심리학주의. ③논리학을 인간 사고에 관한 학문으로 취급하는 심리학주의. ④진리를 수용(acceptance)으로 환원하는 심리학주의. (Resnik(1980), 26쪽 참조)
- 6) Boer(1978), 271쪽.
- 7) 한 전숙(1996), 102쪽.
- 8) Boer(1978), 116쪽.

고, 그가 심리학주의에 반대할 때 그는 논리적인 법칙을 인간의 마음의 실제적인 본성에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그바르트(C. Sigwart), 밀(J. S. Mill) 등의 사상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⁹⁾

밀의 경우 논리학은 ‘사람들이 생각함에 있어서 잘못을 피할 수 있고, 특정한 법칙에 따라서 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술학(Technologie)’¹⁰⁾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논리학은 사고 작용의 기술이며, 그런 의미에서 기술학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밀은 모순율(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이 ‘다른 공리들과 마찬가지로 경험으로부터의 우리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비근한 일반화의 하나’¹¹⁾로서 ‘서로 반대되는 믿음의 작용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것’¹²⁾으로 파악한다. 또한 지그바르트는 모순율은 우리 사유의 자연법칙(Naturgesetz unseres Denkens)으로서, 동일한 명제를 의식적으로 동시에 긍정하고 부정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¹³⁾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이들은 보편적이고 필증적으로 타당한 논리법칙을 경험적 사실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밀은 심리학을 설명적 자연과학으로 보고 있고, 논리적 법칙도 귀납적 자연법칙으로 보고 있다.¹⁴⁾

이처럼 작용대상과 작용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심리학주의적 입장에서는 논리법칙은 단지 심리법칙의 한 특정한 형태로 간주될 뿐이다. 어떤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한에서 발생적 심리학주의는 논리적인 대상들과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들을 모두 정신적인 대상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학주의적인 관점에서 논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이며 논리적 법칙은 곧 인간 사고의 법칙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한

9) Boer(1978), 93쪽.

10) 이영호(1999), 253쪽.

11) 윤명로(1987), 27쪽.

12) Boer(1978), 94쪽.

13) 윤명로(1987), 28쪽.

14) Boer(1978), 271쪽.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과정에 대한 심리학적인 탐구는 논리학의 기초를 탐구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¹⁵⁾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타당성과 수학적인 진리를 주관적이고 심리학적 요소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그러한 설명이 정말로 주어진다면 논리적인 규범은 인간의 마음의 우연적인 구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2) 후설의 초기 심리학주의 입장

후설은 초기에 수학의 기초를 정초하려는 과정에서 브렌타노(F. Brentano)의 기술심리학(descriptive psychology)적 방법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수(數)’의 분석에 있어서도 기술심리학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수학자로서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설의 첫 번째 과제는 ‘수’ 개념의 ‘원천’을 규명하는 일이었고, 이러한 작업을 그는 브렌타노의 분석방법을 이어받아 그것을 수 개념에 적용하여 완수하려 했다.¹⁶⁾ 그의 초기 저작인 『산술 철학』은,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논리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수 개념을 심리학주의적으로 정초하려한 작품이다.

나는 논리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연역적인 여러 학문들의 논리학도 심리학에서 그 철학적인 해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배적인 확신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나의 『산술 철학』의 제1권에서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매우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⁷⁾

『산술 철학』에서 후설이 수행한 심리학주의적 작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산술의 근본적인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초적인 개념들을 분석하고 나서 상징적인 개념들을 이끌어 내고 가장 높은 개념으로 발전하는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산수학을 해명하고자 했다. 상

15) 한 정선(1990), 106쪽.

16) Pivčević(1982), 27~28쪽.

17) Husserl(1900-1), I, vorwort, vi.

징적인 방법은 세 단계로 이뤄져 있다. 1)기초적인 개념들은 직관에서 발생하며 2)상징적인 개념들은 고유한 개념들 속에 기저되어 있으며 3)기호는 상징적인 개념 속에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¹⁸⁾ 후설에 의하면 기초적 개념들은 직관에서 발생하며, 상징적 개념들, 즉 경험으로 대조해볼 수 없는 수 개념의 정당화 문제는 이런 개념형성이 고유한 개념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후설은 ‘수’를 ‘다수(Vielheit)’란 개념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한편, ‘집합적인 결합(kollektive Verbindung)’ 작용에 대한 내적 지각에서 다수의 개념의 기원을 찾고 있다. 즉 후설은 ‘수’ 개념이, 유클리드 이래로 ‘단위들로 구성된 집합체’로 간주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1들로부터 된 다수’¹⁹⁾로 정의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무규정적인 ‘다수’의 개념이 규정됨으로써 ‘수’ 개념이 생겨난다고 파악한다. 후설이 지닌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그에 있어 ‘수’ 개념의 정초에 관한 문제는 ‘다수’의 개념의 정초에 관한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후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다수’의 개념의 정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다수’의 개념을 추상하게 되는 바탕에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의 ‘개별적인 내용들’ 즉 ‘특정한 객체들의 총체(Inbegriffe) 내지는 다수’²⁰⁾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나 ‘총체’의 개념은 단순히 개별적인 내용으로부터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의 외연이 수의 개념의 외연과 일치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²¹⁾이다. 후설에 의하면 그 이유는 ‘총체’ 내지 ‘다수’의 개념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는 개별 내용을 넘어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 어떤 것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전체로 결합시키는 작용 내지는 집합적 결합’²²⁾이며, ‘통일적인 관심과 통일적인 주의로서 여러 내용들을 적출하여

18) Boer(1978), 63쪽.

19) Husserl(1891), 8쪽.

20) Husserl(1891), 9쪽.

21) Boer(1978), 70쪽.

22) Husserl(1891), 13~15쪽 참조.

총괄하는 심리적 작용'²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더하기 어떤 것 더하기 어떤 것 등등, 또는 어떤 하나 더하기 어떤 하나 더하기 어떤 하나 등등, 혹은 더 간단히 말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등등 이상의 다른 것이 아니다.²⁴⁾

즉 '상징적 개념이 주어져 있는 단위의 집합에다 하나의 단위를 계속적으로 더함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호로 '1+1+1+1+....'로 나타낼 수 있다.'²⁵⁾ '다수'의 개념은 이와 같이 집합적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후설의 주장이다. 또한 무규정적인 '다수'의 개념이 규정을 받게 됨과 더불어 '다수'의 개념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와 같이 확연하게 서로 구획 지워진 다양한 규정된 개념들, 즉 수들'²⁶⁾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후설은 '다수의 개념은 '집합적 결합'이라는 심리적 추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며, '수' 개념은 1을 일정하게 결합함으로써 무규정적인 '다수'를 규정하는 작용에 의해, 따라서 역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²⁷⁾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초기 후설에 있어 논리법칙은 사고의 법칙인데, 사고는 심적 사태이므로 논리법칙은 곧 심리법칙의 한 유형이 된다. 후설은 더 나아가 심리학이 논리학만이 아닌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심리학주의의 영향 하에서 학문 연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체의 학문을 심리학에 정초하려한 노선에서 후설은 곧 바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논리학의 영역에서부터 후설은 '사유의 심리학적 연관들로부터 사유내용의 논리적 통

23) 윤명로(1987), 24쪽.

24) Husserl(1891), 85쪽.

25) Boer(1978), 64쪽.

26) Husserl(1891), 87쪽.

27) 윤명로(1987), 25쪽.

일성으로 이행하자마자 아무리 하여도 정당한 연속성과 명석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수학과 모든 학문 일반의 객관성이 논리적인 것의 심리학적 정초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하는 원리적인 의혹²⁸⁾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혹은 갈수록 증대되어 그때까지 추종해 왔던 심리학주의를 그 이상으로 격렬하게 비판하는 길로 후설을 내몰게 된다.

3. 프레게의 反심리학주의

프레게는 논리학에 있어서의 심리학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다. 그는 초기 저서에서 수의 본성과 존재가 인간 혹은 그 외의 정신들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의 표상들과 구별되는 수 자체는 결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고, 산수학의 진리들도 ‘개념들의 분석’에 의해 논증할 수 있는 필연적인 진리들임을 분명히 진술했다. 이러한 프레게의 심리학주의 비판의 토대가 되는 논리사상은 심리학적인 것과 논리학적인 것 그리고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한 것이 그 특징이다. 프레게는 그 자체로 진리인 것과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단지 진리로서 간주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학이 어떤 특정인종이나 일정한 사회집단이, 타당한 것으로서 간주하거나 또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간주하는 행위의 도움을 받아 설명될 수 없는 진리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²⁹⁾ 또한 프레게는 관념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대상의 본성과는 다르다는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다.

수에 관한 언명이 사물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방식과는 사실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 관념과 같은 어떤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놀랄만한 일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잘못된 견해이

28) Husserl(1900-1), I, vorwort, vii.

29) Pivčević(1982), 52-53쪽.

다. 예를 들어 물체의 개념을 무게를 갖고 있다는 개념 아래에, 혹은 고래의 개념을 포유동물의 개념 아래에 속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들은 객관적인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들 자체가 주관적이라면, 두 개념들 간의 관계로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종속된다는 것도 관념들 간의 관계들처럼 역시 주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³⁰⁾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개의 사람은 그 자신의 의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관념들을 지닌다. 따라서 가령 수 2가 관념이라면 수 2는 오직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 사람마다 각각 여럿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수 2의 관념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수 2의 관념이 동일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둘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들은 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프레게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초로 삼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적인 개념이다. 수가 관념이라면, 우리는 산수학에 관해 상호 주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상호주관적인 비교의 가능성이 봉쇄됨으로써 산수학을 둘러싼 논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프레게가 『산수의 기초들』에서 내세운 원리들 중 제1원리인 반심리학주의는 궁극적으로 수의 객관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수란 외적 사물들의 속성도 아님은 물론 나아가 공간적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생각 자체 역시 프레게의 관점에서는 심리학주의적 태도로 간주하며 자신이 내세우고 쓴 문맥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레게에 있어 수는 어떤 물리적 대상, 예를 들면 숫자 일수도 없음은 물론 심적인 대상, 예를 들면 관념일수도 없다. 이와 같이 수 이론에 대한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적 입장은 수가 객관적 대상임을, 그것도 논리적 대상임을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프레게의 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학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Frege(1884), § 47

심리학주의적 논리학자들은 객관적 타당성을 주관적인 근거 위에 다 정초시키고, 그것을 주관적, 심리적 요인들로부터 도출해 내려고 하는데, 이는 객관적 타당성을 단순한 주관적 타당성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독립된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므로, 수학이나 논리학을 심리학적으로 정초하는 경향은 배격되어야 한다.³¹⁾

첫 번째로 밀의 주장에 대해 프레게는 산수학적인 개념이나 법칙들이 경험적인 대상의 탐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산수학 자체가 경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³²⁾ 밀은 『논리학 체계』에서 개별 수의 정의는 물리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즉 밀은 수가 사물의 덩어리의 속성, ‘그 덩어리가 부분들로부터 구성되고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 특징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이라고 주장한다.³³⁾ 물론 사물들의 덩어리는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짚 한 단을 예로 들면 그 짚 한 단은 전체를 반으로 잘라 두 부분으로 만들거나, 그 짚단을 하나하나 분리해 흩트려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수를 물리적 사물들의 집합의 속성으로 보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3746923과 같은 큰 수를 정의함에 있어 주장되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 내지는 물리적 사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0개의 자갈을 보거나 만져볼 수는 없다. 또한 밀은 0이라는 수의 정의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³⁴⁾ 따라서 밀은 0을 정의함에 있어 0이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공허한 기호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6+3+0=9$ 와 같은 식의 계산이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0이라는 기호가 어떤 뜻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처럼 프레게는 수 0에

31) 윤명로(1987), 215쪽.

32) Frege(1884), § 9.

33) Kenny(2002), 100쪽.

34) Kenny(2002), 93쪽.

관한 언명을 수학에서의 경험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결국 개개의 수들에 대한 정의가 일련의 계산과정에서 관찰된 사실을 주장하며 아울러 수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와 관련된 사실들의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밀의 견해는 지지되기 어렵다. 즉 밀의 주장은 산수적 진리의 보편적인 적용성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경험적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밀이 내세운 귀납적 방법 자체도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함으로 산수학의 진리가 경험적이라는 밀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논리학에 대한 관점에서 프레게는 수 이론에 대한 후설의 심리학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게 된다. 즉 프레게는, 심리학자들은 표상대상과 표상자체의 혼동으로 인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단어의 의미와 표상을 서로 구분하지 않으나 수학자들은 한 단어의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후설의 입장도 심리학주의의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수 개념에 관해, 후설이 다수(Vielheit)와 수(Anzahl)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후설이 이 두 개념들이 마치 동일한 외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더불어 다수의 개념을 수의 개념보다 좀 더 일반적이고 무규정적이라 보는 것을 반박했다. 즉 그는 후설이 한 대상이 어느 개념에 포섭되는 것과 한 개념이 다른 어떤 개념에 종속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프레게가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이념적인 것(Ideales)과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실제적인 것(Reales)과를 구분하면서, 다시 말해 5라는 수의 개념과 개별적 대상들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대상인 5라는 수는 우리의 심리작용의 과정이나 결과에 그 발생적 기원을 두지 않는다고 보는 그의 반심리학주의적 입장을 헤아릴 수 있다.

0과 1의 정의에 대해 후설은 적절한 설명을 부여할 수 없었다. 즉 어떤 대상이 ‘하나’ 있거나 혹은 어떤 대상이 ‘없다’는 사실은 대상들의 집

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수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없다. 후설은 모든 단일체 마다 1이라는 수가 적용되며, 덧붙여 0과 1을 개념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단일체와 1이 동일한 외연을 가진 개념인 것으로 가정해야 하고, 또한 어떤 명제에 0이라는 수가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³⁵⁾ 결국 후설은 수 0과 1을 설명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물론 후설은 산수학을 심리학의 한 분과로 취급하지 않았고, 산술의 법칙을 인간 사고의 법칙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수학의 기초개념들을 그 인식론적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표상, 특정한 추상작용, 결합작용 및 이들 작용에 대한 반성작용을 탐구함으로써 해명하고 있는데, 프레게가 후설의 『산술 철학』이 심리학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본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4. 후설의 反심리학주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후설의 비판은 그가 후에 『형식논리학과 선행논리학』에서 구분해 설명하고 있듯이, 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가 『논리연구』에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 즉 논리학의 기초가 심리학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학적 심리학주의’인데, 이 입장은 논리학만을 심리학에 의해 정초하려는 입장이다. 둘째는 그가 후기에 와서 심리학주의의 용어를 확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논리학을 포함한 모든 인문과학을 심리학에 의해 정초하려는 입장, 즉 ‘선행적 심리학주의(Transzendentaler Psychologismus)’이다.³⁶⁾ 후설은 현상학 초기에만 심리학주의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중기에는 인식론 일반에서 심리학주의를 비판하고, 말기 특히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행적 현상학』에서는 심리학주의를 포함한 자연주의가 인간관에 끼친 잘못된 영향을 비판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 이후에도 폭 넓게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내 견

35) Kenny(2002), 123쪽 참조.

36) 신귀현(1979), 49~50쪽 참조.

지했다. 따라서 심리학주의 비판은 자연과학적 세계 이전에 존재하는 생활세계의 위치를 회복시키려는 후기에까지 일관된 이념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의 초기 입장만을 다루고자 한다.

후설은 자신의 초기저술인 『산술 철학』의 심리학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심리학주의를 비판’한 『논리 연구』라는 순수 논리적인 연구로 전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수학이나 논리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리학주의의 도움을 받아 수 이론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나 논리학을 심리학에 정초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게 된 점이다. 수학이나 논리학은 엄밀하게 객관적인 반면에 심리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심리적 작용에 의해 수의 기원을 정초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한, 수학이나 논리학의 명제가 지닌 객관적인 성격은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후설은 자신의 수학에 관한 철학적 연구 과정에서 이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한 깨달음에는 프레게와 특히 볼차노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선 후설보다 먼저 논리학과 심리학이 근원적으로 상이한 연구 분야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었던 프레게는 후설의 수 이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다. 프레게는 후설이 수학의 기본개념을 일정한 심리학적 행위로부터 유도해 내려왔는데 그러한 심리학주의는 객관자체와 객관의 표상을 혼동하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후설은 프레게 이외에도 객관주의 철학을 주장한 ‘볼차노(Bolzano)사상’³⁷⁾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한 영향의 흔적은 그의 ‘『논리 연구 I』이 볼차노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학문으로서의 논리학은 그의 저작을 토대로 하여 건설되어야 한다.’³⁸⁾고 한 『논리 연구 I』 초판에서의 그의 찬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후설은 『산술 철학』의 심리학주의적 시도가 적절치 못함을 깨닫고, 자신의 탐구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수학과 논리학의 관계를 밝히려는 자신의 문제를 확대하여 『논리

37) 주관의 진리 왜곡을 배격하여 진리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판단작용과 판단내용을 구별하여 순수논리학을 확립하려한 볼차노의 사상이 후설의 순수 논리영역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 명로(1987), 17~21쪽 참조).

38) Husserl(1900-1), I, 226~227쪽 참조.

연구』에서 심리학적인 혼합물이 전혀 없는 새로운 순수 논리학의 이념을 구상하고자 시도한다.

후설은 심리학주의가 “이념법칙과 사실의 법칙, 그리고 규범화된 규칙과 인과적 규칙, 논리적 필연성과 사실적 필연성, 논리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 사이의 근본적이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차이를 잘못 인식”³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후설의 『논리 연구』는 잘 알려져 있듯이 ‘논리학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짝이 전혀 견디어낼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증명된 저서’⁴⁰⁾로 인정받고 있다. 『논리 연구 I』에서는 반심리학주의적 기초 위에 논리학을 세우려 하였으며, 『논리 연구 II』에서는 논리학의 근본적인 개념을 해명하려 하였으나, 『논리 연구』의 중요 부분은 역시 논리학과 수학 분야에 있어서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이다. 즉 『논리 연구 I』에서의 후설의 투쟁은 심리학주의에 대한 것이며, 논리적인 법칙을 심리학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는 논리학자들에 대한 투쟁이다. 논리학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논리학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적 작용으로서의 판단, 결론, 증명 등과 관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판단을 다루는 논리학은 참된 판단작용의 심리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¹⁾ 이와 같이 심리학 위에 논리학을 정초하려는 시도를 심리학주의라 부르지만, 후설은 후에 이러한 입장을 ‘논리학적 심리학주의(Logischer Psychologismus)’⁴²⁾라고 부르고 있다.

후설은 심리학주의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에, 심리학주의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우선 심리학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 (1) 사유작용과 같은 심리적인 현상에 대한 규칙은 심리학으로부터 이끌어 나와야 한다.

39) Husserl(1900-1), I, 68쪽.

40) Pivčević(1982), 29쪽.

41) Boer(1978), 270쪽.

42) Husserl(1900-1), I, Vorwort 12쪽.

- (2) 논리학의 주제는 단지 심리적인 현상들 뿐이다.
- (3) 논리학은 그것이 명증적인 확실성의 증거들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감정과 똑같은 심리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인 특수한 유형의 감정을 다룬다.⁴³⁾

후설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논리적인 법칙이 심리학적인 법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심리학주의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1) 논리법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너무나 엄밀해서 경험적인 요소에 의해서는 보장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인 법칙처럼, 모호하고 개략적인 성격을 지녀야만 할 것이다.
- (2) 논리법칙은 모든 경험법칙과 마찬가지로 귀납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개연적인 타당성만을 지닐 수 있을 뿐, 실제로 그것이 보여주는 필연적인 확실성은 지니지 못할 것이다.
- (3) 논리법칙은 한낱 개연적인 자연법칙과 달리 심적인 삶이나 그 밖의 사실들이 실재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그와는 독립적인 필연적인 관계를 다룰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상이나 판단과 같은 심적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불가불 함축하게 될 것이다.⁴⁴⁾

이러한 결과를 들어 후설은 심리학주의가 안고 있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⁴⁵⁾ 첫째, 우리의 심리적 체계에 대한 진리를 포함한 모든 진리는 사유작용의 규칙과 관련될 수 있으나, 심리학적인 법칙은 그러한 규칙들이 특히 인간 본성에 맞추어진 기술적인 지시인 곳에서만 등장한다. 둘째, 수학이 셈하는 조작이 아니라 수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학도 개념을 형성하며 판단하고 추론하는 조작에

43) Spiegelberg(1982), 87쪽.

44) Husserl(1900-1), I, 21~24쪽 참조.

45) Spiegelberg(1982), 87쪽.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작의 산물인 개념, 명제, 결론과 같은 이념적인 실재를 탐구한다. 셋째, 논리학은 감정으로서의 명증감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명증감각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인 대상들로서의 수, 개념, 진리 등 이념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들은, 현실적인 실제적 대상과 구분되는 것으로 주관의 심리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주의는 이러한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이념적인 것(Ideales)과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실제적인 것(Reales)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논리 연구 I』에서 후설은 심리학주의가 ‘Metabasis eis allo Genos’⁴⁶⁾, 즉 학문분야를 혼동하거나 이질적인 것을 혼합할 때 저지르게 되는 부당이행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때 심리학주의가 저지르고 있는 부당이행의 오류란 ‘본질적으로 상이한 학문적 성격을 가진 논리학과 심리학을 혼동하여 논리학의 기초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심리학주의의 잘못’⁴⁸⁾, 즉 판단 내용으로서의 논리적인 법칙과 판단 작용 자체를 혼동하는 오류를 뜻한다. 이 판단작용과 그 내용의 구별이 후설에서는 실제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의 구별과 연관되며, 이 문제가 후설을 인식 작용의 주관성과 인식 내용의 객관성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끌어간다. 결국 논리학적 심리학주의는 판단을 내리는 실제적인 작용(인식 작용의 주관성)과 관념적인 판단 내용(인식 내용의 객관성)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성격상 상이한 학문인 심리학과 논리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러므로 밑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 내지는 심리학과 한 가지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심리학주의도 나타나게 된다.⁴⁹⁾

후설은 당시의 심리학주의적 경향을 논리적 사고의 객관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문일반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학적 위기로

46) Husserl(1900-1), I, 22쪽.

47) 한전숙(1996), 84쪽, 주 18) 참조.

48) 이영호(1999), 233쪽.

49) 이영호(1999) 247~248쪽.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설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시에 논리학 영역에 대한 고찰과 분석, 그리고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순수논리학에 대한 서설(프롤레고메나)』은 결코 파괴적인 것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⁵⁰⁾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서 후설의 심리학주의 비판이 갖는 의미는 심리학의 도움을 거부한 후에 학문의 성립가능성의 조건을 규정하는 논리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심리학적인 혼합물이 전혀 없는 순수논리학의 이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5. 후설과 프레게의 심리학주의 비판: 공통점과 차이점

후설 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사건은, 후설의 『산술 철학』에 대한 프레게의 비판이었다. 프레게는 그 책을 비평하면서 후설이 심리학과 논리학 및 수학을 뒤범벅시킴으로써 심리학주의에 빠졌다고 공격했다.⁵¹⁾ 프레게는 과거 철학자들이 논리학을 그것과는 성격이 판이한 다른 학문과 자주 혼동해 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경험주의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은 논리학을 심리학과 혼동했으며 반면에 데카르트에서 유래하는 인식론적인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은 논리학을 인식론과 뒤섞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⁵²⁾ 특히 프레게는 당대의 많은 수학자들이 철학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바, 그 이유가 철학자체 내에서의 해로운 혼동, 즉 논리학의 영역과 심리학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논리학은 올바르게 이해될 때 심리학과는 아주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수학자에게 심리학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⁵³⁾ 즉 프레게에 따르면, 판단작용은 시공간 안

50) Spiegelberg(1982), 88쪽.

51) 한정선(1990), 100~101쪽.

52) Kenny(2002), 22~23쪽.

53) Kenny(2002), 81쪽.

에서 수행되는 경험적 행위지만 참된 것은 무장소적(ortlos), 무시간적(zeitlos)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참인 것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레게에 있어서는 “진리 그 자체”와 “우리가 진리로 간주함”을 명확하게 구별함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참으로 간주함(Das Für-Wahr-Halten)”은 심리학적인 작업인 반면에, “참인 것 그 자체(Das Wahrsein an sich)”는 순수한 논리적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⁵⁴⁾ 이처럼 논리학과 심리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논리학의 명제는 그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일치될 때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로 인해 참이 됨을 즉 객관적인 의미에서 참이 됨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어떤 대상과 그에 관한 인식이 객관성을 지닌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발생론적 관점을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논리학의 정초의 문제에서 심리학적 관찰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프레게는 철학자들이 자주 범하는 혼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산수의 기초들(Die Grundlagen der Arithmetik)』 서론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논리철학의 원리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항상 심리학적인 것을 논리학적인 것으로부터,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 할 것.
한 낱말의 의미를 그 낱말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물어보지 말고,
한 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물어 볼 것.
개념과 대상 간의 구별을 잊지 말 것.⁵⁵⁾

위의 원리들은, 의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어떤 주관적인 내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심리학주의를 프레게가 거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개념들은 관념들, 심상들, 어떤 종류의 정신적 실재들과 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유

54) Pivčević(1982), 42쪽.

55) Frege(1884), x.

형의 객관적인 실재들이다. 그가 의미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도 언어사용의 이러한 맥락에서이지, 심리학적 과정의 영역에서가 아니다.⁵⁶⁾ 그러나 후설 역시 그의 저서 『논리 연구 I』에서 프레게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주의를 논박한다. 물론 프레게의 비판이 적어도 후설이 이념적인 수(ideal Numbers)를 받아들이도록 공헌하였다고 하는 한에서 후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⁵⁷⁾ 즉 후설과 프레게는 모두 수학의 근본전제를 명백히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밟고 있었고, 그 결과 그 후의 그들의 철학적 발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철학의 발전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충돌이 양자에게 미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⁵⁸⁾

후설과 프레게 모두에게 문제가 되었던 ‘자연수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관해, 그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후설은 수 개념의 발생에 관한 기술적, 심리적 분석을 제공하려 한 반면에, 프레게는 ‘수학의 논리적인 전제의 설명을 시도하기 위해 먼저 개념정의에 관심을 갖고’⁵⁹⁾, 수를 개념외연(Begriffsumfang)에 의거하여 정의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점은 후설이 수문제의 생기적(生起的) 단초를 중시하여, 집합적 결합의 의미와 종합적이고 심리적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에, 프레게는 그의 탐구를 순수한 논리적 지평에서 추구하면서 개념의 외연분석에 중점을 두고 추구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⁰⁾ 먼저 후설의 초기입장은 논리학의 이론적 기초가 심리학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의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논리학의 기초를 탐구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러한 개념들의 추상화가 이뤄지는

56) Munitz(1997), 144~145쪽 참조.

57) Boer(1978), 117쪽.

58) Pivčević(1982), 27쪽.

59) Pivčević(1982), 28쪽.

60) 신귀현(1979), 53~54쪽

구체적 현상을 지시하거나 이 추상화 과정의 방식을 해명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될 것이다. 즉 후설은 프레게와 같이 수 개념의 분석이 수리철학과 일반 인식론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에는 동조했지만, 수는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 개념을 밝혀내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의 심리학적 기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¹⁾

후설은 수 개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 기술심리학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프레게는 외연(Umfang), 동수성(Gleichzahligkeit), 유사성(Ahnlichkeit), 동일성(Gleichheit) 등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형식/논리적인 정의를 통하여 수 개념을 기초 지우려고 시도한다.⁶²⁾ 그러므로 프레게에 따르면 수는 개념에 속하며, 개념에 의해서 대상들이 계산되며, 계산함이 어떤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된다.⁶³⁾ 즉 우리가 수를 셀 때 갖는 결과는 항상 개념의 본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프레게는 후설의 수 이론에 관해 만일 수의 기원을 심리적인 집합적 결합작용에 의해 정초하려 한다면, 즉 무규정적인 다의 개념이 심리적 추상작용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수 개념이 생긴다고 본다면, 심리적인 표상 능력의 한계가 곧 수의 한계로 되고, 따라서 '0'이나 '1'과 같은 수의 성립을 정초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⁶⁴⁾ 왜냐하면 '1'이나 '0'에 있어서 집합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 '집합적 결합'에 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게는 이 문제를 개념외연의 의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1은 그 밑에 단지 하나의 대상이 속하는 개념의 동수성(Gleichzahligkeit)이라는 의미로, 0은 어떤 대상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개념의 동수성이라는 의미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은 후설의 수 이론이 안고 있는 결정적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프레게의 비판에 영향

61) Resnik(1980), 42쪽.

62) 신귀현(1979), 54쪽.

63) Pivčević(1982), 38쪽.

64) 윤명로(1987), 215~216쪽.

65) Pivčević(1982), 37~38쪽.

을 받아, 후설은 자신의 심리학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반심리학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그의 독자적인 순수 논리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그러나 후설의 심리학주의 비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논리학의 근본법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심리학적 탐구를 주장함에 있어 심리학적 탐구의 유용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⁶⁶⁾

이론적인 학문으로서의 논리학은 모든 심리학과 사실학문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논리학 역시 기술론이고 방법론인 점에 있어서는 심리학 더욱이 경험심리학은 논리학의 정초에 함께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논리적인 법칙에 상응하는 명증적인 체험은 논리적인 기술론의 문제로서 설명되고 또한 이 명증적인 체험들이 논리적인 명제들의 내용 속에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정초되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체험들의 연구가 자연과학적인 심리학의 문제로서 설명된다.⁶⁷⁾

위 인용문에서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순수 논리학 혹은 이론적 논리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단지 그 자체로 체험 속에 주어지고 증명되는 법칙으로서의 논리적 법칙성의 타당한 근거를 문제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설은 인식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을 함께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서론에서 취한 방법은 이 두 조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이것을 분리하여 먼저 객관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었다.⁶⁸⁾

주관과 객관의 통일적인 탐구가 올바르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의 객관성, 여기서는 논리적인 형성체의 객관성을 주관화하는 모든 오류에 반대하여 방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⁶⁹⁾

66) 이영호(1999), 254쪽.

67) Husserl(1900-1) I, XXIX쪽.

68) 이영호(1999), 255쪽.

69) Husserl(1900-1) I, XVII, XVIII쪽.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논리 연구 I』이 모든 형태의 심리적 분석을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설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서론에서 비판되는 심리적 설명은 발생 심리적, 인과 심리적, 즉 사실과학으로서의 경험 심리적 분석이고, 이때 ‘기술 심리학’까지 비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⁷⁰⁾ 다시 말해 『논리 연구 I』에서의 심리학주의 비판에서 논박되고 있는 것은 오직 ‘체험의 인과적 관련에 관한 발생적 분석을 의도하는 발생적 심리학일 뿐이고, 체험의 내실적 성소에 관한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을 의도하는’⁷¹⁾ 기술적 심리학 쪽은 조금도 논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⁷²⁾

그러나 프레게에 의하면 심리학주의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변형하면서 이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데 그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에서 후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설의 『산술 철학』에서 ‘표상이란 말 속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포함 시킴으로써 둘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것이 되고, 그 결과 한편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표상이 주관적인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⁷³⁾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려, 그 결과 객관적인 것이 표상으로 다루어졌는바 표상으로서의 이런 환원을 프레게는 심리학주의의 오류라고 말하고 있다.⁷⁴⁾

후설에 대한 프레게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어는 후설의 용어 사용의 애매성을 지적한 것일 수는 있으나 본래적인 비판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모한티 역시 보어와 같은 입장에서 심리학주의가 작용의 대상과 작용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뜻한다면, 이런 심리학주의를 후설은 애초부터 부정했다고 주장한다.⁷⁵⁾ 다시 말해 ‘수의 분석’ 시기 때부터 의식작

70) 이영호(1999), 256쪽.

71) Husserl(1900-1) I, 초판 19쪽.

72) 한전숙(1996), 102쪽.

73) Boer(1978), 20쪽 참조.

74) Boer(1978), 19쪽.

용과 의식 내재적 대상의 분리는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설의 의식에 관한 이론에 대해 프레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에 대한 프레게의 그러한 비판과는 달리 후설이 지닌 심리학주의적 성향에 대한 프레게의 예리한 지적은, 그 결과로 인해 수학에 대한 심리학적인 정초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통해 지각 가능한 것만을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밖의 것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선언’⁷⁶⁾한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여와 모한티 모두의 입장이다.

6. 후설과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가 갖는 의미

후설에게 있어서 심리학주의 비판은, 첫째로 이 문제가 후설 현상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 둘째로는 그 비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의 철학 체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 틀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는 이 비판을 통해 밝혀진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후설이 자신의 새로운 방법론, 즉 현상학적 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⁷⁷⁾ 특히 심리학주의 비판은 후설의 일관된 목표인 엄밀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철학이론이 갖는 대표적인 오류를 걸러내는 연속된 작업의 첫 번째 단계’⁷⁸⁾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후설은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철학이론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먼저 심리학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통해 논리학을 심리학적인 전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논리학을 그 자체로 입증할 수 있는 이론적 학문으로서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의도하는 순수논리학의 이념이다.⁷⁹⁾

75) Mohanty(1982), 21쪽.

76) Boer(1978), 20쪽.

77) 이영호(1999), 235쪽. Farber(1943), 19~20쪽 참조.

78) 이영호(1999), 232~233쪽.

79) Farber(1943), 19~20쪽. 참조

그러나 후설이 『산술 철학』에서의 자신의 심리학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해서 심리학적인 탐구 방법이 지닌 유용성까지 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후설에서 심리학주의적 태도는 비판되지만, 그 심리학적 고찰 방법은 과기해야 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상학적 고찰 방법의 핵심적인 태도로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된다.⁸⁰⁾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주의 비판의 목적은 ‘그 불철저함을 철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이론을 보완하여 완벽하게 만드는 것’⁸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심리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설명과학의 근원적인 기초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인식비판 또는 이성비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험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 점에서 현상학은 의식에 관한 생리학(심리학)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선험철학인 셈이고, 심리학주의 비판 역시 이러한 선험 철학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초전’⁸²⁾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레게가 후세에 남긴 뼈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논리학을 심리학과 인식론에서 분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적 전통은 인식론을 철학의 최일선에 위치시켰고, 경험론적 전통은 논리학의 탐구를 인간의 심적 과정에 대한 탐구와 혼동하였으나, 프레게는 논리학을 심리학과 분리해, 그때까지 인식론이 차지해온 철학의 최일선에 논리학을 위치시켰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바로 이점으로 인해 프레게는 현대 분석철학의 창시자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⁸³⁾ 이처럼 프레게는 인식론이 아닌 논리학을 철학의 토대가 되는 분야로 삼음으로써 중세에 논리학이 차지했던 그 위치로 논리학을 복귀시켰다.⁸⁴⁾ 뿐만 아니라 프레게 이후 논리학과 수학의 주제내용은, 존재방식에 있어서 주관적인

80) 한진숙(1996), 82쪽.

81) 이영호(1999), 235~237쪽. 참조

82) 이영호(1999), 232쪽.

83) Kenny(2002), 295쪽.

84) Kenny(2002), 296~297쪽.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의 담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어느 누가 그것을 참이라 여기든 상관없이 참이라고 하는 즉자존재의 성격을 갖게 된다.⁸⁵⁾ 다시 말해 참인 것은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승인하는가의 여부와 독립해서 참이 된다. 이처럼 프레게의 관심사는 산수에 등장하는 명제들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심리적 과정에는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직관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필연적인 단계들이 증명 속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추리과정을 밟아 그 결론을 입증하게 되는 방식을 찾으려 했는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새로우면서도 개선된 논리학 체계를 고안하게 된다.⁸⁶⁾

심리학주의 비판을 포함한 후설과 프레게가 가진 몇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각기 다른 철학적 길로 나아가게 된 동기는 그들의 철학적인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후설에게는 “어떻게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그의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론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상학으로 발전해 간 반면에, 프레게의 관심은 산수의 증명들에 대한 안전하고 엄밀한 설명방식을 제공하는 데 있었고, 그 산술학의 명제들이 분석적이기 때문에 산술학은 논리학의 한 분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리논리학의 기초를 정립하게 된다.⁸⁷⁾ 즉 프레게는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체계에서 심리학을 철저히 배제한 후에, 대상 그 자체에로 시선을 돌려 객관적인 사상(Gedanke)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반면에, 후설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심리학적 탐구의 유용성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설사상의 발전을 결정하는 근본동기로 간주되는 지향성을 끌어들이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에로 시선을 돌려 선험철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심리학주의 비판을 거쳐 후설과 프레게는 각기 다른 철학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85) Janssen(1986), 29~30쪽.

86) Munitz(1997), 139쪽.

87) 한정선(1990), 99쪽.

철학탐구 제30집

그들의 철학적 본질에 관한 견해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나, 그들 모두가 해결하려 고심했던 문제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결과들은 그들 이후의 철학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호서대학교)

참고문헌

- 신 귀현(1979), 「E. Husserl의 심리학주의 비판」, 『철학회지』, 제6집, 영남대 철학과.
- 이 영호(1999), 「논리학의 심리학적 정초에 대한 비판적 고찰-후설의 심리학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편, 철학과 현실사.
- 윤 명로(1987), 『현상학과 현대철학』, 문학과 지성사.
- 한 전숙(1996), 『현상학』, 민음사.
- 한 정선(1990), 「프레게의 산술철학 비평이 후설에게 미친 영향」, 『후설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 G. Frege(1884), *Die Grundlagen der Arithmetik*, Breslau, 1884, J. L. Austin의 영역본,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Oxford, 1950.
- E. Husserl(1891), *Philosophie der Arithmetik*.
_____(1900-1), *Logische Untersuchungen*, 2 vols. Halle.
- J. Mohanty(1982), *Husserl and Frege*, Blumington: The Indiana Univ. Press.
- B. M. Borchert(ed.)(2006),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제8권, MacMillan Reference USA.
- Marvin Farber(1943), *The Foundation of Phenomenology*, The Harvard Univ. Press.
- M. D. Resnik(1980), *Frege and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 Th. De. Boer(1978), *The development of Husserl's Thought*, tr. by T. Plantinga, The Hague, Martinus Nijhoff.
- G. Currie(1982), *Frege: An Introduction to His Philosophy*, The Harvard Univ. Press.
- H. Spiegelberg(1982),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The Hague, Martinus Nijhoff.

철학탐구 제30집

M. K. Munitz(1997), 박영태 역, 『현대 분석 철학』, 서광사.

A. Kenny(2002), 최원배 역, 『프레게-현대분석철학의 창시자에 대한 소개』,
서광사.

Edo Pivčević(1982), 이영호 역, 『후설에서 사르트르에로』, 지학사.

P. Janssen(1986), 신귀현/배의용 역, 『에드문드 훗설의 현상학』, 이문출판사.

Husserl and Frege's Anti-psychologism

Young Woon Yang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riticisms levelled by G. Frege and E. Husserl against psychologism with special emphasis on clarifying in what respects their criticisms differ. Husserl and Frege got involved in the controversy over psychologism in the course of their attempts to lay a firm foundation for logic and mathematics. Though they were alike in firmly believing that there were some serious problems with psychologism, they did not agree in what those problems were. This disagreement made them take different steps in subsequently developing their respective philosophies. Frege, by removing every psychological elements and all kinds of psychological investigations from his philosophical study, could deal only with objective entities like what he called Thoughts[Gedanke]. In contrast, Husserl, despite his resolutely critical attitude toward psychologism, had no intention to drop his conviction of utility of psychological investigation and thus directed his attention toward consciousness of objects rather than objects themselves. As a result, from Husserl's criticism of psychology grew his phenomenology as an epistemological theory or a transcendental philosophy which delves into the possibility of objective cognition, while Frege's struggle with psychologism helped him create a new philosophical trend called 'analytic philosophy'.

Key words: psychologism, genetic psychology, descriptive psychology, phenomenology, mathematical logic

철학탐구 제30집

양영운 e-mail: thceps@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10월 26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15일